

정치포스터의 상징기호와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시각적 수사법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mbolic Symbol and Expressive Features in Political Posters

Focusing on analyzing visual rhetoric in photomontage of John Heartfield

주 저 자 : 김동필 (Kim, Dong Pil)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융합 전공

공 동 저 자 : 엄기준 (Um, G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 신 저 자 : 엄기준(Um, Gi Ju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umkj@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0.3.252>

접수일자 2020. 8. 25. / 심사완료일자 2020. 9. 15. / 게재확정일자 2020. 9. 2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political poster through the analysis of John Hartfield photomontage. John Hartfield has produced a number of photomontages that criticize Germany's extreme universe and Hitler. His photomontage is an inflammatory political poster and is regarded as an outstanding work of art.. Photomontage of John Heartfield gives an effect on various fields including phtographic, arts, movies, and visual design. To understand how a photomontage of John Heartfield's symbolic symbol and expressive features can be interpreted in the perspective of visual rhetoric, this author draws the visual elements of a photomontage and analyzes the cases of visual rhetoric expressions based on that. According to the results, methods like parady and emphasis are diversely used. In particular, in color, a monotone achromatic color was used to express the gloomy times in a metaphor. Based on the results, it would be possible to produce more efficient political posters.

Keyword

John Heartfield(존 하트필드), Photomontage(포토몽타주), Political Posters(정치포스터), Political parody(정치적 패러디), Visual symbolic symbol(시각적 상징기호), Visual Rhetoric(시각적 수사법).

요약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분석을 통하여 정치포스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존 하트필드는 독일 극우주의와 히틀러를 비판하는 많은 포토몽타주를 제작했다. 그의 포토몽타주는 선동적인 정치포스터이며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적 성향이 강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사진, 미술, 영화, 시각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존 하트필드 작품의 상징기호와 표현특성이 시각적 수사법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존 하트필드 작품의 시각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수사법의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패러디와 강조법이 다양하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컬러에서는 모노톤의 무채색으로 암울한 시대상을 비유법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치포스터의 제작과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과 범위
- 1-3. 선행연구 분석

2. 이론적 배경

- 2-1. 정치포스터의 의의
- 2-2. 정치포스터의 상징기호
- 2-3. 정치포스터의 표현특성

2-4. 존 하트필드 작품 세계

3.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분석

- 3-1. 시각적 수사법
- 3-2. 분석 요소의 설계

4.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 분석

- 4-1. 분석대상작품의 개요
- 4-2. 포토몽타주 분석
- 4-3. 분석 소결

5. 결론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치포스터는 대중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 매체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정치포스터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가도 정보를 생산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SNS를 활용하는 대중이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며, 국가와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가장 예술적이며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활용한 존 하트필드(John Heartfield, 1891-1968)의 정치포스터를 시각적 수사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정치포스터는 국가가 직접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선동하지만,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상징기호와 패러디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표현으로 대중을 설득한다.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포스터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 기호학적 분석은 다소 부족하므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를 기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존 하트필드는 예술을 무기로 사용한 독일 출신의 혁신적이고 비판적인 예술가이다. 대다수의 정치포스터는 정치포스터로만 활용되었지만, 포토몽타주 기법을 활용한 존 하트필드의 작품은 단순한 정치포스터를 넘어서는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다다이즘을 바탕으로 한 반파시즘적인 그의 작품은 정치포스터의 발전과 팝 아트(Pop Art) 등 현대 미술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에 대한 정치포스터로서의 표현특성에 관한 시각적 수사법 분석을 통하여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와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환경으로 선거용 정치포스터 이외의 정치포스터 분야의 발전은 미약하지만, 정치 패러디에 대

참고문헌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패러디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정치포스터를 제작한 존 하트필드에 관한 연구는 국내 정치포스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정치포스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을 향한 정보 전달에 치중한 정치포스터를 예술의 수준으로 발전시킨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기호적 특성과 정치포스터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여, 정치포스터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팝 아트 등 현대미술에도 영향을 미친 존 하트필드의 표현기법을 활용하면, 정치포스터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제품의 예술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정치포스터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연구와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이다.

이론적 배경에 관한 문헌조사는 국내외 단행본, 논문, 사진, 인터넷 자료로 이루어졌다. 사례분석에서는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에 대하여 기호학적 특성과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하여 정치포스터의 표현특성을 분석한다.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와 존 하트필드 작품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범위이다.

첫째 존 하트필드의 작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와 달리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징기호를 중심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한다.

둘째 존 하트필드의 작품은 정치포스터이다. 따라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표현 특성을 시각적 수사법으로 분석하고, 디자인적 가치를 평가한다.

셋째 존 하트필드의 작품은 일반적인 정치포스터를

넘어선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존 하트필드의 작품 제작 시기와 비슷하며 정치포스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트 시대의 정치포스터 표현 특성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중 네 점을 분석한다. 존 하트필드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분석 작품 선정의 객관성과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1900년부터 2015년까지 884점의 도판과 115년의 역사가 응축된 현대미술사의 결정판이라고 평가되는,¹⁾ “1900년 이후의 미술사3판”에 수록된 존 하트필드의 작품 네 가지를 분석한다.

1-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정치포스터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시각적 수사법 분석에 관한 연구와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정치포스터의 기호학적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09년 배다연의 “기호학적 분석에 의한 국내 외 선거 포스터 디자인의 시각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17대 대선의 포스터에 대해 기호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기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표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들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석했다.

정치포스터의 시각적 수사법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13년 김연주의 “정치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수사적 수사 접근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정치포스터에서 나타나는 프로파간다의 표현기법과 특성을 파악하고,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분석을 하였다.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작품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2019년 오병희의 “좌파적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연구 - 정통 좌파를 대변하는 AIZ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존 하트필드의 작품을 바이마르 정권 초기 정치적 예술 활동 시기(1920-1928), 세계대공황 이후 사민당, 나치스 비판시기(1929-1932)와 독재저항과 사회주의 실현(1933-1938)으로 나누어 포토몽타주가 지닌 정치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1) <https://search.daum.net/nate?w=bookpage&bookId=1168921&tab=introduction&DA=LB2&q=1900%B%85%84%20%EC%9D%B4%ED%9B%84%EC%9D%98%20%EB%AF%B8%EC%88%A0%EC%82%AC>

본 연구는 존 하트필드의 작품을 상징기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정치포스터에 관한 연구와 다르고, 시각적 수사법으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를 분석하여, 정치포스터의 표현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기존의 존 하트필드 작품 분석에 관한 연구와 다르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치포스터의 의의

2-1-1. 정치포스터의 역사

포스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는 인쇄매체이다.²⁾ 포스터는 사회적 기능과 제작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치포스터는 사회적 긴장이나 전쟁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적 단결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추진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다. 정치포스터는 어떤 특정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이나 특정 인물들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정치선전물이다.³⁾

이념대립이 극심했던 러시아 혁명 이후 냉전시대까지 소비에트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포스터가 많이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반공포스터가 중요한 정책 홍보수단이었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모병과 방첩을 선전하는 정치포스터가 우리나라, 미국과 영국 등 모든 전쟁 당사국에서 활용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홍보하는 선거용 정치포스터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이며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이다.

2-1-2. 현대 정치포스터의 문제점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정치포스터는 시대적 배경 및 디자인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지만, 표현양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정치포스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러시아에서도 소비에트의 표현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이철민, 김준교, 포스터 레이아웃의 비가시적 조형요소, 한국디자인포럼, 2012, Vol36, p.19.
3) 문철, 김현경, 포스터 디자인에 나타난 변증법적 발상과 해석작용- 1930년대~2000년대 국내-외 정치포스터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14, 15권1호, p.177.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SNS와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 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치포스터는 아직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선동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면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이 정치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중미술 분야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단순한 선거홍보용 이외의 정치포스터로 평가받는 작품이 일부 있다. 1985년 박불동의 “악몽2”는 패러디를 활용하여 군사정부에 대한 비판을 포스터 형식으로 풍자하였다.⁴⁾

존 하트필드는 20세기 초에 이미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정치포스터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2-2. 정치포스터의 상징기호

2-2-1. 퍼스의 기호 정의

퍼스는 고전적인 기호 정의에 해석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퍼스는 “기호 혹은 표상체는 어떤 관점 혹은 능력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다, 기호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 즉 그 사람의 정신에 동등한 기호, 혹은 아마도 더 발전된 기호를 창출한다. 그 기호를 나는 첫번째 기호의 해석체라 부른다. 기호는 어떤 것, 즉 그것의 대상을 나타낸다”고 기호를 정의했다.⁵⁾

표상체는 기호전달체로서 대상을 대신하거나 대상을 표상하고, 대상은 지시대상으로 표상체를 결정한다.

해석체는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해석체는 표상체를 통해 대상에 의해 간접적으로 결정된다. 즉 해석체는 해석자의 정신세계에서 연상해낸 의미 효과 또는 개념이다.

2-2-2.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

기호를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기호는 도상(icon), 지표(index)와 상징(symbol)으로 구분된다.

도상은 대상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존재하며,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해석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기호이다.

지표는 대상과의 인접성을 근거로 존재하며, 대상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만, 해석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기호이다.

상징은 대상과의 관성성을 근거로 존재하며, 상징은 해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는 기호이다. 상징은 해석체에 의하여, 자연적인 관계가 아닌, 관성적인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는 기호이다.

2-2-3. 표상체와 해석체의 관계

퍼스는 기호의 형식적 조건 중 세 번째 조건으로 기호의 해석적 조건을 규정했다. 기호의 해석적 조건은 기호는 하나의 해석체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호가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기호로서 해석되어야 한다.⁶⁾

따라서 해석체는 기호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석체는 직접적(immediate), 역동적(dynamic)과 최종적(final)으로 구분된다. 이중 최종적 해석체는 기호 번역의 결과물이므로, 기호가 제공하는 정보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는 기호의 의미(sense)와 지시대상(reference) 그리고 내포(Connotation)와 외연(Denotation)의 통합이다.⁷⁾

2-3. 정치포스터의 표현특성

2-3-1. 패러디의 활용

정치포스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현 형식에는 풍자와 패러디가 있다. 패러디는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한 소재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고 재구성하여, 대중에게 새로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패러디에는 풍자, 은유와 반어법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패러디는 풍자적 성향이 강한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패러디는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 통쾌함마저 주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⁸⁾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패러디를 통한 정치 분야에 대한 풍자는 증가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패러

4) 김연주, 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013, Vol.26, p.209.

5) CP.2.228.

6) CP.2.308.

7) 제임스 야콥 리슈카, 이윤희 역, [퍼스 기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pp.76-82.

8) 임성택, 디자인 차용·빌려온 예술의 정당한 활용,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12, 38호, p.155.

디 포스터 컨테스트”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폭발적인 네티즌의 호응을 얻었다.⁹⁾

2-3-2. 정치포스터의 레이아웃

정치포스터의 레이아웃은 텍스트와 시각 요소를 디자인 계획대로 배치하는 작업으로 구성 요소를 보기 좋게 배치하고 구성을 결정하는 작업이다.¹⁰⁾

레이아웃의 구성 요소는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이미지(image), 표제와 설명문의 타이포그래피(typo graphy), 컬러(color), 여백(space)이다.

이미지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진은 재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고, 정치포스터의 내용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작가의 주장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문자언어이고, 컬러는 정치포스터의 시각적 구성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대중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치포스터 레이아웃의 구성 원리는 균형(balance)과 비례(proportion), 운동(movement)과 변화(variation), 강조(emphasis)와 대비(contrast), 통일(unity)과 조화(harmony)와 여백(space)과 정렬(alignment)이다.

균형은 시각 중심점을 기준으로 정치포스터의 전체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는 비율의 관점에서 상대적인 크기의 관계를 의미한다.

운동은 리듬 또는 움직임이라고도 하며, 역동적인 규칙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는 명확한 메시지 전달에 장애가 되는 시각적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강조는 작가의 주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대비는 성질이나 분량이 다른 요소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배치한 위치에 따라 정치포스터를 분류하면, 중앙정렬 구도, 좌측정렬 구도, 우측정렬 구도, 상단정렬 구도, 하단정렬 구도, 사선 구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사진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선구도는 극적인 움직임의 동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¹¹⁾

2-3-3. 소비에트 정치포스터의 표현 특성

사회주의 혁명과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소비에트 시대의 정치포스터는 국가가 국민을 선동하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포스터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가 제작된 시점과 유사하다.

정치포스터의 일반적인 표현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에트 시대 정치포스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선, 색, 형태, 구도 등 구성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둘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장식적인 세리프 서체에서 벗어나, 명확성과 선명성을 갖춘 산세리프 서체를 활용했다.

셋째 서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강한 원색인 붉은색과 검은색을 주로 사용하였고, 정치적 메시지와 이념을 강하게 파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컬러를 사용했다.¹²⁾

넷째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는 사진을 이용한 포토몽타주 기법을 많이 활용했다.

2-4. 존 하트필드 작품 세계

2-4-1. 다다이즘(Dadaism)

다다이즘(Dadaism)은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참상을 겪은 예술가들이 과거의 모든 예술 형식과 가치를 부정하고 비합리성, 반도덕, 비심미적인 것을 추구한 예술사조이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인한 막대한 배상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이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극단적 극우주의와 군국주의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베를린다다그룹은 다른 나라의 다다그룹에 비하여 매우 정치적이었고, 선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

1917년 존 하트필드는 베를린다다그룹에 가입했고, 라울 하우스만(Raoul Hausmann), 조지 그로스(George Grosz)와 한나 회흐(Hannah Höch) 등과 함께 활동했다. 베를린다다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존 하트필드는 반파시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포토몽타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9) 송지성, 박소영, 정치패러디포스터에 나타난 시각적 유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4, Vol.10, No.3, p.95.

10) 김택순, 국내소설 표지의 레이아웃 구성원리 적용 ; 2000년 이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4, 제40권제1호(통권제66호), p.25.

11) 이정운, 디자인의 원리에서 찾아보는 효율적인 레이아웃구조에 관한 연구 - 포스터 중심으로 -, 조형미디어학, 2012, 15권3호, p.157.

12) 김경옥, 유우중, 소비에트와 러시아 정치포스터의 시대에 따른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3, 14권3호, p.9.

2-4-2. Arbeiter Illustrierte Zeitung(AIZ)

반파시즘을 외친 독일의 주간잡지 AIZ는 1924년 빌리 뮌제베르크(Willi Muenzenberg)에 의해 창간되었다.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AIZ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AIZ의 표지와 기사에 200여개의 포토몽타주를 게재했다. AIZ에서 제작한 정치적인 포토몽타주로 인하여,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전예술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의 작품들은 현대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AIZ는 처음에는 베를린에서 발행되었지만,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집권 이후에는 프라하에서 발행되었고, AIZ는 유럽 전역으로 배포되었다. AIZ에 게재된 존 하트필드의 작품들을 통해 많은 유럽인들은 전쟁의 위험과 히틀러의 폭력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독일과 유럽의 수많은 반전(反戰) 운동가들은 존 하트필드의 작품을 벽에 붙였다.

2-4-3. 포토몽타주와 현대예술

베를린다다그룹에서는 표현 도구로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사진이나 사진의 조각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베를린다다그룹에서는 photo(사진)와 montage(독일어로 조립 또는 일관적업)를 합성하여 photomontage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1919년 피카소의 콜라주 형식을 패러디하여 존 하트필드, 하우스만, 회흐 등은 공동으로 최초의 포토몽타주 프로젝트를 발전시켰다.¹³⁾ 이들은 포토몽타주를 제작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과 잡지에 있는 레디메이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표현에 필요한 사진들을 합성하고, 적절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무질서하면서 자극적인 포토몽타주를 만들었다.

상징적인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미니멀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의 작품은 1930년대 헤게모니 매체 장치에 역선전을 가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사례이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 후기 형태인 파시즘의 부흥에 반대 목소리를 낸 유일한 시각적 아방가르드였다.¹⁴⁾

13) 할 포스터 외, 배수희 외 역, [1900년이후의 미술사3편], 세미콜론, 2016, p.186.

14) Ibid., p.200.

3.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한 분석

3-1. 시각적 수사법

정치포스터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사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퀴틸리안은 수사학의 기술을 “말 잘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바 있으며 이 구절은 “어떻게”의 측면이 양식의 주요한 측면이었음을 상기시켜 준다.¹⁵⁾ 그래서 수사법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수사법은 [표 1]수사법의 분류와 같이 비유법, 변화법과 강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적 수사법은 언어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언어적 수사법과 시각적 수사법을 구분해서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¹⁶⁾ 따라서 시각적 수사법은 “어떻게 시각적인 말을 잘할 것인가”로 표현할 수 있다.

[표 1] 수사법의 분류¹⁷⁾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직유법	도치법	과장법
은유법	인용법	반복법
풍유법	설의법	영탄법
의인법	반어법	열거법
대유법	문답법	점층/점강법
의성/의태법	대구법	대조법
활유법	생략법	

3-2. 분석 요소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수사법을 활용하여 정치포스터로서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상징기호와 표현특성에 관하여 분석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치포스터는 직접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존 하트필드의 정치포스터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설득방식을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른 기호의 종류, 기호에서 사용된 수사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기호의 요건 중에서 명확한 메시지의 전달에 필요한 해석체의 존재와 최종적 해석체인 정보의 외연과 내포를 분석한다.

15) 서지원, [미학의 문제와 방법(미학대계제2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p.317.

16) 조각현, 디자인 공모전 수상광고의 수사법 활용에 관한 연구-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15, 제51호, p.48.

17) 엄기준, 김민정, 타이틀 시퀀스의 시각적 수사법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23(4), p.575.

둘째 정치포스터의 표현특성에 관한 분석은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어, 선행 연구의 기법을 활용한다.¹⁸⁾ 다만 존 하트필드 작품의 중요한 표현 특성은 패러디를 활용했다는 점과 사진을 활용한 포토몽타주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특성과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의 기법을 바탕으로, 패러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구성에서 활용된 시각적 수사법을 분석하고, 사진 이미지를 중심으로 레이아웃의 구성 원리인 균형과 비례, 운동과 변화와 강조와 대비의 시각적 수사법을 분석한다.

4.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 분석

4-1. 분석 대상 작품의 개요

존 하트필드는 AIZ의 표지와 기사에 많은 포토몽타주를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지만, 분석 작품의 예술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미술사의 결정판이라고 평가받는 “1900년 이후의 미술사3판”에 수록된 존 하트필드의 작품 네 가지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존 하트필드의 작품은 1928년에 제작된 “파시즘의 얼굴”, 1932년에 제작된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와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와 1935년에 제작된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이다.

4-2. 포토몽타주 분석

4-2-1. 작품명 : 파시즘의 얼굴, 1928년.

1928년에 제작된 [표 2] “파시즘의 얼굴”은 이탈리아 공산당이 발행한 “시슬에 묶인 이탈리아(Italy in Chains)”의 표지로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가 베를린다다그룹의 초기 포토몽타주 미학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¹⁹⁾

18) 김연주, 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013, Vol.26, pp.204-209.

19) 조주연, [현대미술강의], 글항아리, 2017, p.203.

[표 2] “파시즘의 얼굴” 개요

구분	내용
제목	파시즘의 얼굴.
연도	1928년
해설	 <p>- 시대적 배경 : 무솔리니는 폰티네 습지의 개간 같은 공공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성과를 보였음.</p> <p>- 해설 : 죽음을 연상시키는 해골의 얼굴을 한 무솔리니, 권력과 결탁하여 지위를 유지하는 자본가와 성직자, 무장한 파시스트와 전쟁에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음.</p>

[표 3] “파시즘의 얼굴” 분석

기호특성	내용
기호의 종류	상징 : 대상과 관계는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
기호의 수사법	직유법 : 표상체 => 해골, 대상체 => 죽음
해석체의 존재	해골은 죽음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한 해석체가 존재.
최종적 해석체	외연 : 해골의 얼굴. 내포 : 파시즘으로 인하여 희생되는 민중들.
표현특성	내용
스토리텔링	풍유법(풍자와 패러디) : “이탈리아의 얼굴을 바꾸겠다”는 무솔리니의 선언을 패러디함.
이미지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함.
타이포그래피	강조법 : 선명한 산세리프 서체 사용.
컬러	비유법 :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암울하고 무거운 시대상을 비유함.
균형과 비례	강조법 :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시각중심점에 배치함.
운동과 변화	강조법 : 중앙정렬 구도로 무솔리니의 얼굴에 시선이 집중된 후에 상하좌우의 이미지로 시선이 이동함.
강조와 대비	과장법 : 무솔리니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게 표현함. 대조법 : 권력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본가와 성직자는 상단에 배치하고, 무장한 파시스트 폭력배들과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민중은 하단에 배치하여 상하로 대조됨. 대조법 :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자본가와 살아 있는 민중은 좌측에, 사후 세계를 의미하는 성직자와 시체들은 우측에 배치하여 좌우로 대조됨.

[표 4]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 개요

구분	내용
제목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
연도	1932년
작품	 <p>- 시대적 배경 : 1932년에는 독일제국의회선거가 진행되었고, 이 선거에서 자본가의 지원을 받은 나치당이 승리함.</p> <p>- 해설 : 입으로는 민중을 위한 척하지만, 히틀러는 자본가와 결탁하여, 속에는 금화가 가득하고 금화로 만들어진 첩추를 가진 부패한 인간임을 표현하고 있음.</p>

[표 5]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 분석

기호특성	내용
기호의 종류	상징 : 대상과 관계는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
기호의 수사법	제유법 : 표상체 => 금화, 대상체 => 자본가
해석체의 존재	배 속에 가득한 금화는 자본가와 결탁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한 해석체가 존재.
최종적 해석체	외연 : 배속에 가득한 금화. 내포 : 자본가와 결탁하여 자본가의 이권을 지원하고 있음.
표현특성	내용
스토리텔링	풍유법(풍자와 패러디) : 히틀러의 권위적인 연설장면을 패러디함.
이미지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함.
타이포그래피	강조법 : 선명한 산세리프 서체 사용.
컬러	비유법 :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암울하고 무거운 시대상을 비유함.
균형과 비례	강조법 :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시각중심점에 배치함.
운동과 변화	강조법 : 중앙정렬 구도로 히틀러의 얼굴에 시선이 집중된 후에, 입에서 첩추를 따라 하단으로 시선이 이동함.
강조와 대비	과장법 : 금화로 만들어진 첩추와 배속의 가득한 금화로 히틀러의 부패함을 과장함. 반복법 : 금화를 반복적으로 배치함.

[표 6]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 개요

구분	내용
제목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
연도	1932년
작품	 <p>- 시대적 배경 : 사회주의의 성장을 두려워 한 자본가는 1932년 독일제국의회 선거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을 지원함.</p> <p>- 해설 : 히틀러와 나치당이 자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p>

4-2-2. 작품명 :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 1932년.

작품명 :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 1932년.

1932년에 제작된 [표 4] “초인 히틀러, 금을 삼키고 헛소리를 하다”는 AIZ의 표지로 사용되었다가, 이후에 좌파 정치포스터로 다시 제작될 정도로 독일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이 포토폴타주는 히틀러가 1932년 1월 뒤셀도르프에서 기업가들에게 연설한 이후에 제작되었다.²⁰⁾

역시 1932년에 제작된 [표 6]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는 AIZ의 표지로 사용되었고, 자본가와 히틀러를 결탁하게 만드는 정치와 경제의 속모를 연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²¹⁾

1932년에 제작된 두 작품은 1932년 독일제국의회 선거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에 반대하는 선거용 정치포스터 작품이다. 그러나 당시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독일인들의 인기는 높았다. 이를 우려한 존 하트필드는 자본가와 결탁한 히틀러의 부패함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실패했고, 히틀러와 나치당은 자본가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1932년 독일제국의회 선거에서 제1당으로 부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히틀러는 1933년에 독일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20) 조한렬, 존 하트필드의 포토폴타주에서 사진과 텍스트 - 읽기와 보기 -, 혜세연구, 2017, 제37집, p.220.

21) 할 포스터 외, 배수희 외 역, [1900년이후의 미술사3판], 세미콜론, 2016, p.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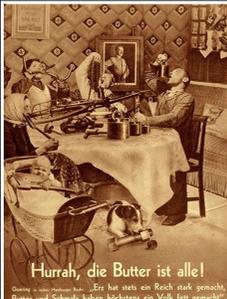
[표 7] “히틀러식 경례의 의미 : 내 뒤에는 백만장자들이 있다” 분석

기호특성	내용
기호의 종류	상징 : 대상과 관계는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
기호의 수사법	제유법 : 표상체 => 지폐, 대상체 => 자본가
해석체의 존재	지폐를 받는 것은 자본가와 결탁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한 해석체가 존재.
최종적 해석체	외연 : 거대한 남자에게 경례하면서 지폐를 받음. 내포 : 자본가와 결탁하여 자본가의 이권을 지원하고 있음.
표현특성	내용
스토리텔링	풍유법(풍자와 패러디) : 엄숙한 “히틀러의 경례”를 돈을 받는 수단으로 패러디함.
이미지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함.
타이포그래피	강조법 : 선명한 산세리프 서체 사용.
컬러	비유법 :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암울하고 무거운 시대상을 비유함.
균형과 비례	강조법 :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3분법의 우측에 배치함.
운동과 변화	강조법 : 사선구도로 좌측의 거대한 자본가에서 우측의 왜소한 히틀러로 시선이 이동함.
강조와 대비	과장법 : 자본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고, 히틀러는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함. 검강법 : 좌측의 거대한 자본가에서 우측의 왜소한 히틀러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인물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

4-2-3. 작품명 :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 1935년.

1935년에 제작된 [표 8]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는 AIZD의 표지로 사용되었고, 군국주의와 극우 전체주의로 나가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독일인의 삶과 벽에 걸린 히틀러 사진을 통해 히틀러 우상화 작업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표 8]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 개요

구분	내용
제목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 .
연도	1935년
작품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margin-left: 10px;"> <p>- 시대적 배경 : 괴링은 독일 항공 분야의 총책임자였고, 전쟁 수행을 위해 전시경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함</p> <p>- 해설 : 괴링의 전쟁 준비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독일인의 삶과 히틀러 우상화를 보여주고 있음.</p> </div> </div>

[표 9] “만세, 버터를 먹는 시기는 끝났다” 분석

기호특성	내용
기호의 종류	상징 : 대상과 관계는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
기호의 수사법	제유법 : 표상체 => 철, 대상체 => 무기
해석체의 존재	철은 무기라는 사회적 약속에 의한 해석체가 존재.
최종적 해석체	외연 : 가족들이 식사로 철을 먹고 있음. 내포 : 군국주의로 피해를 겪은 독일인의 삶
표현특성	내용
스토리텔링	풍유법(풍자와 패러디) : “철은 항상 한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버터와 돼지기름은 사람들을 뚱뚱하게 한다.”라는 괴링의 연설을 패러디함.
이미지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함.
타이포그래피	강조법 : 선명한 산세리프 서체 사용.
컬러	비유법 :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암울하고 무거운 시대상을 비유함.
균형과 비례	강조법 :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3분법의 우측에 배치함.
운동과 변화	강조법 : 사선 구도로 좌측 하단의 아기에서, 가족들을 거쳐, 우측 상단의 히틀러 사진으로 시선이 이동함.
강조와 대비	과장법 : 아기와 강아지가 먹고 있는 철을 크게 표현함 열거법 : 강아지와 가족들이 먹고 있는 철의 종류를 다양하게 열거함. 대조법 : 사람들이 실제로 먹을 수 없는 철을 먹고 있는 것으로 표현함.

4-3. 분석 소결

정치포스터로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의 상징기호의 특성과 표현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분석 결과 요약

기호특성	내용
기호의 종류	대상과 관계는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하는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있음.
기호의 수사법	제유법적인 관계를 가진 표상체와 대상체를 사용.
해석체의 존재	기호는 하나의 해석체를 확정해야 한다는 기호의 해석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최종적 해석체	외연과 내포가 명확한 최종적 해석체임.
표현특성	내용
스토리텔링	풍자와 패러디를 적절히 활용한 풍유법.
이미지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함.

타이포그래피	선명한 산세리프 서체를 이용한 강조법.
컬러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암울하고 무거운 시대상을 표현한 비유법.
균형과 비례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시각 중심점과 3분법의 우측에 배치한 강조법.
운동과 변화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앙경렬 구도와 사선구로를 사용한 강조법.
강조와 대비	대상들 사이의 상대적 크기를 과장하는 한 과장법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배치한 대조법.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상징기호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에서 사용된 기호는 상징기호이다. 상징기호는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어서 관습성을 근거로 존재한다. 그리고 표상체와 대상의 관계에 따른 상징기호에서 사용된 시각적 수사법은 직유법과 제유법이다.

둘째 작품에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약속에 의한 하나의 분명한 해석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체는 정보의 외연과 내포가 명확한 최종적 해석체이다.

그리고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표현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에서는 패러디를 사용하였다. 정치인들의 말이나 동작을 패러디하여, 작가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이미지는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 중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여 포토몽타주를 제작하였다. 사진의 완벽한 재현성으로 인하여, 정치포스터에서 사진은 이미지로 많이 활용된다.

셋째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선명하고 가독성이 높은 산세리프 서체가 사용되었다. 정치포스터가 효과적인 프로파간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식적인 세리프 서체 보다는 직선적이고 강력한 산세리프 서체가 보다 효과적이다.

넷째 컬러에서는 모노톤의 무채색으로 암울한 시대상을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붉은색과 검은색의 원색을 주로 사용한 소비에트 시대의 정치포스터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레이아웃의 구성 원리인 균형과 비례에서는 시각적 메인 이미지를 시선이 집중되는 시각 중심점에 주로 배치했고, 운동과 변화에서는 시선이 시각적 메인 이미지로 이동되게 이미지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강조와 대비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다.

5. 결론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의 상징기호와 표현특성에 관하여 시각적 수사법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 존 하트필드 포토몽타주는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총, 칼 그리고 깃발과 같은 일차적이며 직접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상징기호를 사용하여 간접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둘째 스토리텔링에서는 패러디를 적극 활용하여 풍자와 시각적 유머를 제공하면서도, 비참하면서도 슬픈 시대상과 파시즘의 폭력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인 정치포스터에서도 이미지로 신문이나 잡지의 레디메이드 사진을 활용한 포토몽타주 기법을 사용한다. 존 하트필드는 기존 포토몽타주의 무질서하고 부조리한 면을 비판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형식의 포토몽타주를 시도했다.

넷째 시선을 집중시키는 고체도의 붉은색과 검은색의 강한 컬러의 사용은 지양하고, 모노톤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도, 강력한 선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들이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가 단순한 정치포스터를 넘어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 이유이다.

상징적인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미니멀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예술에서 미술가들은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기법을 응용하여, 사진적 재료들을 혼합하는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을 진행한 대표적인 작가는 앤디 워홀(Andy Warhol)과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ber)가 있다.²²⁾ 이들을 통해 존 하트필드의 표현기법은 현대예술에서 더욱 발전했고, 이러한 표현기법을 활용하면 정치포스터의 표현력과 예술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개인이 정보를 생산하고 대중을

22) 돈 애즈, 이윤희 역, [포토몽타주], 시공아트, 2018, p.170.

설득하는 시대가 도래 했지만, 아직도 많은 정치포스터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선동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20세기 초에 대중을 설득하는 정치포스터를 제작한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는 정치포스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돈 애즈, 이윤희 역, [포토몽타주], 시공아트, 2018.
2. 서지원, [미학의 문제와 방법(미학대계제2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5.
3. 손홍, 김진실 역, [기호학 입문 - 의미와 맥락, 제2판], 비즈앤비즈, 2018.
4. 제임스 아쿱 리슈카, 이윤희 역, [퍼스 기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9.
5. 조주연, [현대미술강의], 글항아리, 2017.
6. 할 포스터 외, 배수희 외 역, [1900년이후의 미술사3판], 세미콜론, 2016.
7. 김경옥, 유우중, 소비에트와 러시아 정치포스터의 시대에 따른 표현적 특징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13, 14권3호.
8. 김덕순, 국내소설 표지의 레이아웃 구성 원리 적용 ; 2000년 이후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2014, 제40권제1호(통권제66호).
9. 김령, 전복과 선동의 미학 - 베를린 다다의 포토몽타주 -, 예술과미디어, 2013, Vol.12, No.1.
10. 김연주, 정치 포스터에 나타난 프로파간다 유형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2013, Vol.26.
11. 문철, 김현경, 포스터 디자인에 나타난 변증법적 발상과 해석작용- 1930년대~2000년대 국내 외 정치포스터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014, 15권1호.
12. 송지성, 박소영, 정치패러디포스터에 나타난 시각적 유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04, Vol.10, No.3.
13. 엄기준, 김민정, 타이틀 시퀀스의 시각적 수사법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7, 23(4).
14. 이설민, 김준교, 포스터 레이아웃의 비가시적 조형요소, 한국디자인포럼, 2012, Vol36.
15. 이정운, 디자인의 원리에서 찾아보는 효율적인 레이아웃구조에 관한 연구 - 포스터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2012, 15권3호.
16. 임성택, 디자인 차용·빌려온 예술의 정당한 활용,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12, 38호.
17. 오병희, 좌파적 정치적 목적성을 가진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연구 - 정통 좌파를 대변하는 AIZ 게재 작품을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2019, 제20권제1호.
- 18, 오세권, 한국 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표현에 관한 연구 - 회화 이미지의 차용을 중심으로 -, 기호조형학연구, 2013, 통권57호.
19. 조각현, 디자인 공모전 수상광고의 수사법 활용에 관한 연구-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15, 제51호.
20. 조한렬, 존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에서 사진과 텍스트 - 읽기와 보기 -, 헤세연구, 2017, 제37집.
21. 강미정, 'C. S. 퍼스의 기호학 연구 - 신미술사의 철학을 위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2. 배다연, '기호학적 분석에 의한 국내 외 선거포스터 디자인의 시각 표현요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3. www.daum.net.